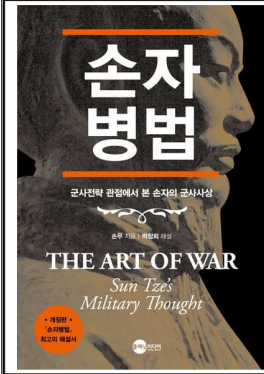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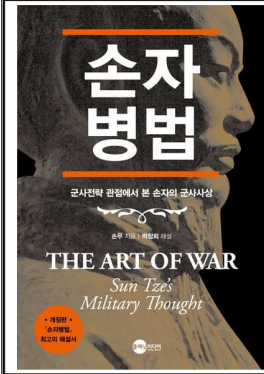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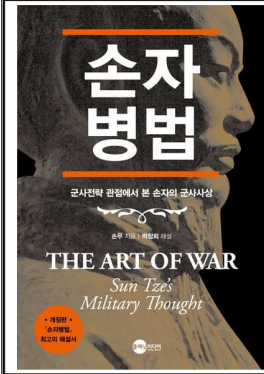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유럽(Book You Love)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 장 소 : *** 북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강*하	학번	2021****	이름	차*민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번	2021****	이름	장*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I. 활동주제 : 손무(손자)의 「손자병법」을 읽은 후 감상을 나눈다. 전쟁과 전술에서 시작되는 역사적인 전략서를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각자 의견을 나눈 후 적절한 토의 주제를 선정한다.</p> <p>II. 책 정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width: 15%;">제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td> </tr> <tr> <td>저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손무 (박창희 해설)</td> </tr> <tr> <td>출판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플래닛미디어</td> </tr> <tr> <td>분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문/군사</td> </tr> <tr> <td>독서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3(목) ~ 10/9(수)</td> </tr> </table>									제목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	저자	손무 (박창희 해설)	출판사	플래닛미디어	분류	인문/군사	독서기간	10/3(목) ~ 10/9(수)
		제목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																
저자		손무 (박창희 해설)																	
출판사		플래닛미디어																	
분류		인문/군사																	
독서기간		10/3(목) ~ 10/9(수)																	
<p>III. 책의 줄거리와 선정 이유</p> <p>(줄거리) 「손자병법」은 중국 춘추시대의 병법서로, 병법의 대가 손무가 쓴 것으로 전해진다. 이 책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전술, 그리고 군사 조직과 지휘에 관한 지혜를 담고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편 : 전쟁의 본질과 필요성을 논하며, 승리의 조건을 분석하고 전쟁은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작전편 :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비용 관리의 중요성을 다룬다. 전쟁이 길어질 경우 국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며, 신속한 전투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설명한다. 3. 모공편 :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적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동맹을 깨며, 심리전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4. 균형편 : 방어와 공격의 기본 원칙을 다룬다. 강점을 유지하고 약점을 보완하 																			

며, 적의 실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5. 병세편 : 전쟁에서의 유리한 형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병력의 배치, 상황의 활용, 기세를 높이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장*우 선정) 손자병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사 전략서로, 전쟁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비즈니스, 과급, 정치,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혜망을 갖고 있다. 손자병법은 전쟁과 갈등의 본질을 통찰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는 고전이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지혜, 효율적인 자원 관리, 그리고 적과 나를 깊이 이해하는 방법은 현대 군사에서도 큰 교훈을 준다. 특히 변화무쌍한 전장 상황에 대응하는 유연한 사고를 기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군인으로서 전문성을 키우고 실전을 대비하기 위한 훌륭한 지침서로 이 책을 선택했다.

IV. 「손자병법」에서 감명 깊었던 내용

(1) 김*희

故將有五危 : 必死可殺也, 必生可虜也, 忿速可侮也, 廉潔可辱也, 愛民可煩也.
고장유오위 : 필사가살야, 필생가로야, 분속가모야, 염결가욕야, 애민가번야.

“그러므로 장군에게는 다섯의 위기가 있다. 필히 죽기만을 생각한다면 살해될 것이고, 필히 살기만을 생각한다면 포로가 될 것이다. 분노와 빠른 속도만을 생각한다면 수모를 당할 것이고, 청렴과 결백함만을 생각한다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또한 병사를 너무 아끼는 장군은 번민에 빠진다.”

지휘관이 필사적으로 한 가지 목표만을 추구하거나, 감정에 휘둘리거나, 지나치게 도덕적 기준에만 얽매이면 오히려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에서 생활할 때,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후배들을 지나치게 아끼거나 보호하려 한다면 리더로서 결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다. 또한 지휘관이 되어 상급자와 하급자에 대한 조율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다양한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모든 선택에 있어 유연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구절이 인상 깊다고 느꼈다.

(2) 장*우

知彼知己, 百戰不殆, 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적의 상황을 알고 나의 상황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나의 상황만 알고 있다면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패배한다.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나의 상황도 모르면 매번 전쟁을 할 때마다 필히 위태로워진다.”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임관 후 소대원을 교육할 때 인용하여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전쟁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을 때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갈등을 더 키우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차*민

故兵貴勝，不貴久。故知兵之將，民之司命，國家安危之主也。
고병귀승, 불귀구. 고지병지장, 민지사명, 국가안위지주야.

“그러므로 전쟁은 승리가 귀중하나, 오래 끄는 것은 귀하지 않다. 그러므로 전쟁을 아는 장수가 국민의 목숨, 국가의 안위를 책임진다.”

장기적인 목적만을 쫓아가다 보면 자칫 주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리더로서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구절이다. 단기적인 승리와 장기적인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리더에게 어려운 과제이므로,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목표에만 집중하면 결국 나와 조직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목표를 단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다. 특히 군인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의 속도보다는 과정에서의 신중함과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4) 강*하

故善戰者，求之於勢，不責於人，故能擇人而任勢。任勢者，其戰人也，如轉木石，
고선전자, 구지어세, 불책어인, 고능택인이임세. 임세자, 기전인야, 여전목석,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전쟁의 승패를 기세에서 구하지 병사들을 문책하지 않는다. 고로 능력 있는 자를 택하여 임명하고 그에게 기세를 준다. 기세를 잘 조정하는 자는 전쟁을 할 때 병사들을 목석처럼 전환시킨다.”

책에서 말하는 ‘기세’란 부하들을 굳건한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적들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뜻한다. 또한 ‘목석’이란 수동적이고 움직임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곳에서 정숙하고 위태로운 곳에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즉 훌륭한 지휘관이란 부하들로 하여금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잘못되더라도 부하들을 다그치고 질책하기보다는, 다음 임무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병력관리에 있어서 훌륭한 자를 알아보고 적절한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과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지휘관이 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명심하고 하급자에게는 충성을, 상급자에게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되새기게 되었다.

V. 토의 주제 선정

(1) 김*희 :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문무겸전은 무엇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리더십의 자세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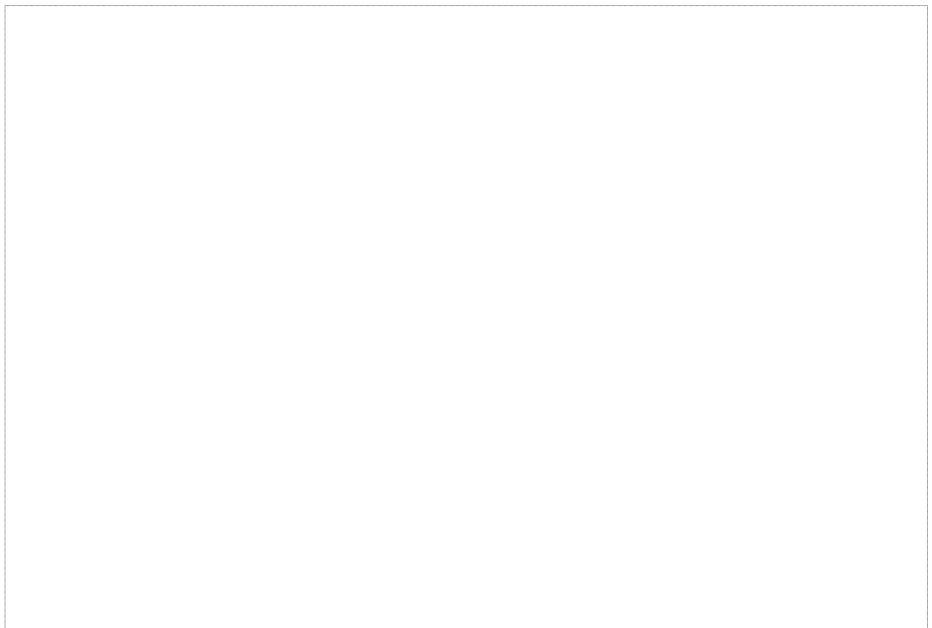
(2) 장*우 : 문무겸전을 갖춘 장교가 되기 위해 「손자병법」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은?

(3) 차*민 :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장수의 덕목(지, 신, 인, 용, 엄)을 현대 리더십과 비교하여, 오늘날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4) 강*하 : 병력관리에 있어 「손자병법」에서 찾을 수 있는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최종 주제]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장수의 덕목(지, 신, 인, 용, 엄)을 현대 리더십과 비교하여, 오늘날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VI. 활동 사진



2024년 10월 10일

참가자대표 : 강 * 하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유럽(Book You Love)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 장 소 : *** 북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강*하	학번	2021****	이름	차*민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번	2021****	이름	장*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I. 활동주제 : 손무(손자)의 「손자병법」을 읽고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각자의 의견을 나눈다. 특히 책에서 중요하다고 여긴 ‘장수의 덕목’을 중심으로 올바른 리더십의 모습에 대해 토의하고 이상적인 현대 지휘자의 태도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p> <p>II. 토의 주제 :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장수의 덕목(지, 신, 인, 용, 엄)을 현대 리더십과 비교하여, 오늘날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p> <p>장수의 덕목이라 함은 지(智), 신(信), 인(仁), 용(勇), 엄(嚴)의 다섯 가지 덕목으로 이루어진 「손자병법」의 주요 개념이다. 훌륭한 장수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 가치를 말하는데, 지(智)는 적절한 계책을 찾아낼 줄 아는 지혜를, 신(信)은 부하와 상관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을 뜻하며, 인(仁)은 다스리는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용(勇)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 책임지는 용기를, 마지막으로 엄(嚴)은 공정한 규율을 세워 엄격히 지키는 태도를 의미한다. 5가지의 모든 덕목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어느 하나 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리더의 핵심 가치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훌륭한 리더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독자 개인의 의견이 분분할 것이고, 특히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리더가 되기 위하여는 그에 걸맞는 내면과 외면을 아울러 갖추는 역량이 필요하므로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듣기 위해 선정한 주제이다. 또한 팀 ‘북유럽(Book You Love)’의 모든 구성원들은 *** ****으로, 소속되어 있는 상급부대인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도 위의 5가지 덕목 중 3가지인 ‘지, 신, 용’을 표어로 삼아 교육하고 있다. 즉, 군대라는 매우 복합적인 집단에서 장교로서 임관하게 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다.</p> <p>III. 주제에 관련된 의견 발표</p> <p>(1) 장*우</p> <p>손자병법에 나오는 장수의 다섯 가지 덕목 중에서 지휘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智)’라고 생각한다. 지는 단순한 지혜 이상의 의미로, 전략과 상황 판단 능력을 포함한다. 전쟁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신속한 결단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지휘자는 적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하는 전황에 빠</p>							

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적을 속이고,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으며, 약점을 공략하는 등의 전술적 판단은 모두 지의 덕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다변화된 환경에서는 지휘자가 현명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병력 전체가 위협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신이나 용 등 다른 덕목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결국 지휘관의 지혜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는 다른 덕목의 바탕으로 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2) 강*하

손자병법에서 언급되는 장수의 덕목 5가지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신(信)'이다. 한 순간에 생사가 오가고 급박한 전쟁터에서 전우 사이의 신뢰가 없다면 그 어떤 작전도 성공할 수 없다. 특히 개개인의 병사들을 지휘해야 하는 지휘자라면 이러한 신뢰가 더욱 필수적이다. 만약 지휘자가 어떠한 명령을 내렸을 때 부하가 그 명령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수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 올바른 부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 장수의 덕목 중 신(信)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덕목과의 상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부하들은 지혜로운 지휘자를 신뢰한다. 훌륭한 전략과 이상적인 계획, 신중한 명령을 내리는 리더라면 그 누구라도 선호하고 따를 것이다. 반면 자애로운 성품으로 부하들을 무척 아낀다고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하다면 긴박한 순간에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혜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많아 책임을 회피하는 자라면 중대한 일을 맡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갖추더라도 집단의 엄격한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뢰를 잃게 된다. 이처럼 손자병법이 강조하는 장수의 덕목들은 결국 모두 '신(信)'의 획득으로 이어진다. 특히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과의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매우 까다로워서, 군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상관과 부하가 상호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곧 지휘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5가지 장수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신(信)'이다.

(3) 차*민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지(智)'는 지휘관이 가져야 할 통찰력과 전략적 사고를 의미하며, 이는 전장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지(智)의 예시 중 인천상륙작전은 '지'의 중요성을 극명히 보여준 사례인데, 당시 맥아더 장군은 상륙작전에 있어 지형적 불리함과 적군의 방어력을 뛰어넘기 위해 비상한 전략적 사고를 발휘했다. 일반적으로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상륙 작전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평가받았으나, 맥아더는 이를 오히려 역이용하여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 작전을 성공시켰다. 이는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치밀하게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점과 장소를 선택한 '지(智)'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뛰어난 지휘관은 단순히 용기나 신뢰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장을 통찰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부대를 효율적으로 이끌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이며,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손자병법의 다섯 가지 장수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은 '지'이다.

(4) 김*희

손자병법에 나오는 장수의 다섯 가지 덕목 중에서 '용(勇)'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된다.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과정에서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수가 군대를 이끌며 전장에서 맞닥뜨리는 위협과 도전에 맞서는 데 있어 필수

적인 용기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장수가 가진 용기는 전쟁의 승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병사들에게 강력한 동기와 신뢰를 불어넣어 준다. 용기 있는 장수는 전장의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군을 이끌고, 자신의 생명도 불사하며 전장에서는 모습을 보여 병사들에게 사기를 높인다. 또한, 전투 중에는 순간적인 결단력과 담대한 행동이 요구되며, 용기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감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용기를 잃은 장수는 전장과 병사들 앞에서 신뢰를 잃게 되어 전체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전투의 패배를 초래한다. 따라서 장수의 용기는 군 전체의 사기와 연대감을 유지하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중심적인 힘으로, 손자병법에서 '용'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이유라 할 수 있다.

V. 활동 사진

2024년 10월 17일

참가자대표 : 강 * 하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유럽(Book You Love)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 장 소 : *** 북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강*하	학번	2021****	이름	차*민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번	2021****	이름	장*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I. 활동주제 : 김승호의 「돈의 속성」을 읽은 후 감상을 나눈다.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와 유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초년생인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들을 고민한 후 적절한 토의 주제를 선정한다.</p> <p>II. 책 정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r> <td style="width: 30%;"></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돈의 속성</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저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김승호</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출판</td> <td style="text-align: center;">스노우폭스북스</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분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경제/경영</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독서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24(목) ~ 10/30(수)</td> </tr> </table> <p>III. 책의 줄거리와 선정 이유</p> <p>(줄거리) 「돈의 속성」은 저자인 김승호 회장이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돈에 대한 철학, 원리,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는 돈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와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속성을 가진 존재로 설명한다. 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는데, 그중 첫 번째 주제는 ‘돈의 본질과 철학’이다. 돈은 ‘사람의 수준에 맞게 머문다’며, 돈을 대하는 태도가 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돈에 대해 조급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실용적인 조언’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출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부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는 방법의 중요성도 다룬다.</p> <p>(차*민 선정)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의 재정 관리와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돈의 속성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방법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특히</p>									제목	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출판	스노우폭스북스		분류	경제/경영		독서기간	10/24(목) ~ 10/30(수)
		제목	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출판	스노우폭스북스																					
	분류	경제/경영																					
	독서기간	10/24(목) ~ 10/30(수)																					

저자는 '돈은 사람의 수준에 맞게 머문다'는 철학을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재정적 수준과 태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는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메시지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도와준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례와 실용적인 조언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기과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적 독립과 부의 축적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IV. 「돈의 속성」에서 감명 깊었던 내용

(1) 김*희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투자를 하란 말이 행복하게 살지 말고 구두쇠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이 구절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저축의 오류에서 일깨워 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과거에는 오로지 저축에만 혈안 되어있던 때가 있었으나, 작은 돈을 모은다 한들 나의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않되 큰돈을 마땅히 보낼 줄 알고, 사회 경제 구조에 대한 공부와 적절한 소비습관을 구축하여 현명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부분이 인상 깊었다. 무작정 저축만을 목표로 하여 나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까지도 외면하기보다는, 현명하고 행복한 인생을 계획하되 신중하게 돈을 쓰고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2) 장*우

인상 깊은 내용은 “돈은 중력과 같아, 더 큰 돈이 있는 곳으로 끌려간다”는 구절이다. 이 문장은 돈의 흐름과 축적의 원리를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한다. 이는 돈이 단순히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관, 태도, 그리고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자산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 내용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의 태도와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돈을 관리하는 지혜뿐 아니라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돈의 중력과도 같은 특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더욱 현명하게 돈을 벌고 관리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싶다고 느꼈다.

(3) 차*민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과거에 나는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 단기적인 주식 트레이딩에 뛰어들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다가 손해를 본 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문구를 읽고 나서, 부자는 끝까지 부자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깨달으며 장기적인 플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돈에 대해 성급하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판단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욕심을 내려놓고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돈의 속성」을 통해 성급하고 단기적인 시야를 버리고 더욱 침착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4) 강*하

작가는 돈을 '인격체'라고 표현하면서, 돈이라는 존재를 단순한 물질이나 숫자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감정과 의지가 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여겨야 한다고 말한

다. 즉 돈은 사람과도 같은 품성을 지녔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여기거나 쉽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돈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가가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돈의 속성을 이해하고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했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사람처럼 생각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다. 「돈의 속성」을 읽기 위한 첫번째 관문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처럼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새롭게 갖추어야 진정한 돈의 속성을 이해하고 부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돈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책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현명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이나, 당장 소액이라도 저축하고 불릴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단계별로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돈이 찾아오게 하려면 나부터가 품위 있게 행동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말했던 '돈은 인격체'라는 개념에 따라서, 내가 올바른 태도로 돈을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자연스럽게 돈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뜻이다. 「돈의 속성」을 통해 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과감하되 미련하지는 않은 결정으로 앞으로 효과적인 돈 관리에 신경써야겠다고 느꼈다.

V. 토의 주제 선정

- (1) 김*희 : 부를 축적하기 위해 윤리적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 (2) 장*우 :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인가, 아니면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상징인가?
- (3) 차*민 : 단기적인 경제적 목표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 (4) 강*하 :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방법' 중, 사회초년생인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최종 주제]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방법' 중, 사회초년생인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VI. 활동 사진

2024년 10월 31일

참가자대표 : 강 * 하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유럽(Book You Love)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 장 소 : *** 북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강*하	학번	2021****	이름	차*민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번	2021****	이름	장*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I. 활동주제 : 김승호의 「돈의 속성」을 읽고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각자의 의견을 나눈다. 특히 작가가 말하는 돈의 특징들에 대해 토의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젊은 세대로서 우리가 앞으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도록 한다.</p> <p>II. 토의 주제 : <u>'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방법'</u> 중, 사회초년생인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p> <p>*「돈의 속성」에서는 우리가 현명하게 돈을 벌고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는 특히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방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 주제를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좋은 돈이 찾아오는 7가지 방법'이란, 현재 부를 축적하지 못한 평범한 독자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추상적인 지침으로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첫째,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위 없는 짓이다. 둘째, 도움을 구하는 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 셋째,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넷째, 기록하고 정리해라. 투자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다섯째,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여섯째,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두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일곱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p>							

이처럼 작가는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이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만이 좋은 돈이 찾아온다고 말한다. 모든 가치가 중요하지만, 특히 곧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 될 우리 구성원들이 제일 명심해야 할 최고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들에 대해 각자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Ⅲ. 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1) 장*우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째, 장기 목표를 가져라'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점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장기 목표가 없다면 단기적인 유혹이나 순간적인 선택에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모든 선택과 행동이 목표를 향한 투자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장기 목표를 설정하면 단기적인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쉬워진다. 예를 들어, 돈을 모으고 싶다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경력을 쌓고 싶다면 자기계발에 투자할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적 목표를 가지는 것이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강*하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방법' 중, 사회초년생인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첫째,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이다.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훈하며 자랐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사회생활이 시작되고, 사회의 어른들은 더 이상 젊은이들을 훈내지 않는다. 그러나 버릇 없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부터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작가가 든 예시로, 욕을 하고 투덜거리거나 지저분한 차림으로 다니거나, 혹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하는 태도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결여된 모습이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을 꽤 접할 수 있고,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예의를 차리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엄격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책이 돈에 대한 이야기지만 삶의 모든 부분을 관통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가치는 매우 중요하며, '돈은 하나의 인격체'라는 작가의 말에 따라 돈이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태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방법'들 중에 사회초년생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는 바로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리는 것'이다.

(3) 차*민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라는 말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를 넘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내뱉는 말, 행동, 그리고 태도는 단순한 습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욕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일은 자신의 이미지를 해칠 뿐 아니라, 타인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는 결국 사회적 관계와 개인의 품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우리에게 이러한 품위 있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경박한 행동이나 무심한 태도는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기회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품위는 단지 외적인 꾸밈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일관된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든다. 지저분한 차림이나 경박한 자세는 단순히 외적 태도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습관이 지속되면 자신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과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품위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며, 이는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인 우리는 작은 습관 하나라도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품위 있는 태도는 자신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다주며, 타인과의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될 것이다.

(4) 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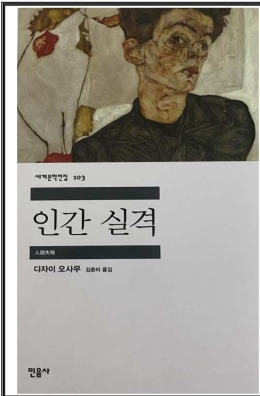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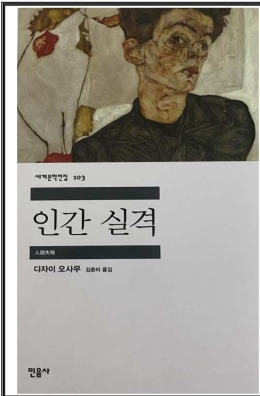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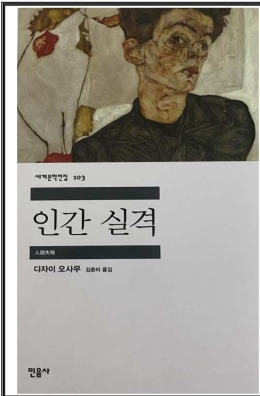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 7가지’ 중 사회초년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섯번째,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 또한 수많은 동아리에 들어가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찌보면 사랑받고자하는 욕구가 강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정작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내 주변인을 돌보지 못하는 자신을 돌이켜보며 이게 내가 바랬던 삶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되었다. 인간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관심을 가져주길 원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대한 관심이 없으며 이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때에도 같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랑받고자 하면 새로운 도전은 반드시 더더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 혹은 가족의 지지로도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며,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보다 나와 어울릴 수 있고 사랑받으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또 다른 인격체인 돈을 움직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에게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었다.

IV. 활동 사진

2024년 10월 24일

참가자대표 : 강 * 하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유럽(Book You Love)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 장 소 : *** 소강의장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강*하	학번	2021****	이름	차*민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번	2021****	이름	장*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I. 활동주제 :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을 읽고 감상을 나눈다. 격변하는 현실에서 인간과 삶에 대한 회의감으로 고통을 겪었던 작가의 회고록을 통해 우리가 힘든 순간에 가져야 할 이상적인 태도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의견을 나눈 후 적절한 토의 주제를 선정한다.</p> <p>II. 책 정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5"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td> <td style="width: 15%;">제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간실격</td> </tr> <tr> <td>저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다자이 오사무</td> </tr> <tr> <td>출판</td> <td style="text-align: center;">민음사</td> </tr> <tr> <td>분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장편소설</td> </tr> <tr> <td>독서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31(목) ~ 11/6(수)</td> </tr> </table>									제목	인간실격	저자	다자이 오사무	출판	민음사	분류	장편소설	독서기간	10/31(목) ~ 11/6(수)
		제목	인간실격																
저자		다자이 오사무																	
출판		민음사																	
분류		장편소설																	
독서기간		10/31(목) ~ 11/6(수)																	
<p>III. 책의 줄거리와 선정 이유</p> <p>(줄거리) 다자이 오사무 작가를 투영한 '요조'가 삶을 살아가며 '인간 실격자' 라고 느끼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는 소설이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동화되지 못하고 부서지며 무너져가는 요조의 삶을 들여다본다.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요조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익살꾼이 되었다가, 반정권에 힘쓰기도, 마약, 정신병원 입원까지의 삶을 살아가며 죽음만을 기다리게 되는 그는 '인간 실격자' 되고 된다.</p> <p>(김*희 선정) 「인간실격」은 인간 영혼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며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 준다. 인간사회에 융화되고자 하는 요조의 모습은 현대사회의 우리 모습과 닮아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우리는 여러가지 사회적 가면을 쓰며 살아나간다. 누구보다 사회와 융화되길 바라며 또 이 세상과의 괴리를 느끼는</p>																			

젊은이들의 모습은 요조와 닮아있다고 볼 수 있다. 잔혹하고 타산적이며, 위선적인 허위로 가득 찬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인간실격」은 미약하지만 단단한 위로를 전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IV. 「인간실격」에서 감명 깊었던 내용

(1) 강*하

“그나저나 네 난봉도 이쯤에서 끝내야지. 더 이상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 세상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인간의 복수일까요. 그 세상이란 것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이 강하고 엄하고 무서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여태껏 살아왔습니다만, 호리키가 그렇게 말하자 불현듯 "세상이란 게 사실은 자네 아니야?"라는 말이 혀끝까지 나왔습니다.”

주인공 요조는 끊임없이 사람을 의심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세상의 존재를 의심하는 인물이다. 친구 호리키와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요조는 자신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세상'이라는 실체에 대해 의심한다. 또한 호리키가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전체가 아니라 말의 주인인 호리키 개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실격이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라는 점을 비추어 보면 전체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1909년 출생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속에서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이다.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존립을 중요시했던 당시 일본에서 자아를 잃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빠져 결국 약물에 중독된 삶을 살았던 다자이 오사무와 이야기 속 요조는 매우 닮아 있다. 즉 작가는 전쟁의 참혹함으로부터 '국가'라는 '세상'을 막연하게 두려워했으나, 알고 보니 국가라는 세상 또한 매우 독립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만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야기 속 주인공 요조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전체 속에서 어릿광대짓을 이어가면서 불안한 생활을 계속한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또 다른 '개인'들을 찾아 방황했지만,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고 시들어간다. 그래서 인간실격의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부분은 바로 이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삶, 난봉, 방황, 거짓을 반복하다가 사라진 한 사람의 이야기. 세상이라는 건 사실은 개인이 아닐까?

(2) 장*우

“나는 스스로를 웃음으로 감추고 있었다. 나의 삶은 그저 누군가를 웃기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 이 구절은 요조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모습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심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나를 포함한 현대인들 역시 종종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추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진짜 자신을 숨기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살아가는 요조의 모습은, 자기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내면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이 문장은 삶과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인상 깊었다. 요조의 고백은 삶과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본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어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이 구절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진정성을 찾고자 하는 보편적인 갈망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의 고통을 대변하는 강렬한 메시지로 다

가오기 때문에 인상 깊었다.

(3) 차*민

주인공 요조의 말,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그의 고독과 소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대사라고 본다. 그는 어릴 때부터 타인과의 관계에서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꼈으며,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광대'처럼 행동하며, 웃음과 친절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며 그를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는다. 요조의 고백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인간관계 딜레마를 반영한다고 본다.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운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겪어봤을 것이다. 요조는 인간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타인과의 관계를 '위험한 줄타기'처럼 여긴다. 그는 이 고백 뒤에 깊은 불안과 자기 부정감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인상 깊은 이유는 요조의 고독이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가면을 쓰며 살아간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내면은 공허해지고 인간관계는 피상적으로 변한다. 요조가 느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감정은 자신과 타인의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이 대사는 인간관계의 본질과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며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요조처럼 사회적 가면 속에서 진짜 나를 잃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요조의 고백이 오늘날까지도 공감을 얻는 이유라 생각한다.

(4) 김*희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요조의 첫 수기를 여는 이 문장은 나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자신의 생애를 부끄럼으로 정의했을까? 책을 읽어 내려가며 나는 자연스럽게 요조의 삶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의 고백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쓸쓸함이 마음 깊이 다가왔다. 특히 삶과의 괴리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이해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누구나 살아가며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감정이기 때문에 요조의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

그가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정말 없는 사람인지 스스로 고민하며 따라가 본 그의 여정은 단순한 파멸의 기록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진 내면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여정으로 느껴졌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연약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요조가 감내했던 고통은 그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상처와 다르지 않았다.

요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극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했다. 그의 고백을 따라가며 나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함과, 그 불완전함 속에서의 존재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런 점에서 인상 깊었다고 느꼈다.

V. 토의 주제 선정

(1) 강*하 : 주인공 요조의 입장에서 '인간 실격'이 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인

간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2) 장*우 :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차*민 : 개인의 사회적 실패는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가?

(4) 김*희 :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도 타인의 영향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최종 주제]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실격」의 주인공 요조는 어린 시절부터 '광대'의 가면을 쓰고 살았으며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까봐 늘 두려워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고, '겉쟁이는 행복마저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행복에 대한 가치관도 부정적이었다. 요조의 주위 사람들은 요조를 혐오하거나 동정했고, 그는 오히려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아껴주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서 도망치곤 했다. 그 과정에서도 언제나 솔직해지지 못했으며 술과 담배, 마약에 빠져 살았다. 우리는 이러한 요조의 삶을 보면서 왜 그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숨겨야만 했는지 궁금했다. 또한 우리는 요조와 다른가? 우리도 일상 속에서 언제나 진솔하지 못하고 가짜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언제 그런지, 그 이유와 함께 심도 깊게 고민하기로 했다.

VI. 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1) 강*하

요조는 스스로 '광대'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책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요조가 사람의 애정을 갈구하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였다는 점과 '행복하다'는 감정을 한 번밖에 느끼지 못했다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그가 사람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람과의 교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러한 교류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는 상처를 서로 주고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 노력하며,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도록 힘쓴다. 하지만 요조는 그럴 수 있는 힘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사랑받기 위한 '광대'라는 가면을 썼던 것이다. 요조가 책의 제목인 '인간 실격'을 자신에게 부여한 시점은 그가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 당했을 때다. 당시의 정신병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가두거나 격리시키기 위함이었음을 비추어 보면, 요조는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거절 당했던 시점에서야 스스로를 인간 실격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도 대상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요조처럼 모두 일정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 두려움을 마주해야 할 때에 가면을 쓰게 되는 것 같다.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써 당당하게 마주보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남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먼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장*우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이는 사회적 역할, 타인의 기대, 그리고 자기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우리는 전문성을 강조하며 업무에 집중하는 가면을 쓰고, 가족과 함께할 때는 다정한 모습으로 변한다. 또한 친구와 있을 때는 자유롭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가면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사회적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모두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면을 선택한다. 둘째, 우리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가면을 사용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억누르고 외적으로 '적합한' 모습을 보이려 한다. 셋째, 내면의 불안과 상처를 감추기 위한 자기 방어 메커니즘으로서 가면을 쓰기도 한다. '진짜 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거나,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다. 그러나 이러한 가면은 때로는 자신을 잃게 만들거나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드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의 존재를 인지하고, 진정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차*민

우리는 다양한 상황과 역할 속에서 가면을 쓰며 살아간다. 이러한 가면은 종종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거나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사용된다. 나 역시 낯선 환경에 놓일 때 '행복한 사람'의 가면을 자주 쓴다. 이는 슬픔과 고통을 감추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또한, 불안하고 힘든 감정을 드러낼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면은 종종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심리의 산물이기도 하다. 인간 실격에서 요조가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숨기며 살아간 것처럼, 나 역시도 타인에게 실망을 주거나 상처받는 것을 피하려는 본능적 반응으로 가면을 쓰곤 한다. 이는 멘탈이 약한 나에게 나름의 방어 기제가 되지만, 동시에 '나'로서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든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상황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가면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

결국, 가면은 일시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원활히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내면의 고통을 키우고 진정한 자아를 잃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다. 또한, 때로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를 내는 것이, 더욱 건강한 관계와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바뀌어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

(4) 김*희

요조는 소설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무언가 확고한 이유를 댈 수 없는 무형적인 두려움 속에서 그는 낙천적인 사람처럼 살아가고자 한다. 하지만 요조의 사람들과 어울리고자하는 노력은 무너져 내리고 마지막엔 스스로가 '인간실격자'로 정의 내리는 결말로 소설은 끝을 내린다. 하지만 요조에 대한 후일담에는 그는 술을 많이 먹긴 했지만 천사처럼 좋은 사람이였다는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이 사회에서 가면을 쓰지 않고 내 진실된 모습을 내보인

다는 것, 우리는 가면을 쓰지 않는 것이 가능한 세상에 살고있는가 라는 의문을 남긴다. 우리도 마치 요조처럼 또 다른 자아의 인격을 쓴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두려움과 논쟁이 가득한 세상 속 우리는 또 다른 '나'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다양한 이유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가면은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고,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가면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나가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면을 쓰는 동시에 우리 본연의 모습이 가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하다.

VII. 활동 사진

2024년 11월 7일

참가자대표 : 강 * 하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유럽(Book You Love)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 장 소 : *** 북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강*하	학번	2021****	이름	차*민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번	2021****	이름	장*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I. 활동주제 :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읽고 감상을 나눈다. 자아의 신화를 찾아 떠나는 평범한 양치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적절한 토의 주제를 선정한다.</p> <p>II. 책 정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목</td>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연금술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저자</td>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파울로 코엘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출판</td>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문학동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분류</td>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장편소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독서기간</td>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11/14(목) ~ 11/20(수)</td> </tr> </table> <p>III. 책의 줄거리와 선정 이유</p> <p>(줄거리) 평범한 양치기인 주인공 산티아고가 우연히 사막에 묻힌 보물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낯선 땅으로 긴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티아고는 '자아의 신화'와 '마크툽'에 대해 배우게 된다. 그 과정에서 신비로운 한 연금술사를 만나면서 연금술의 진리에 관해서도 깨우치게 되어 진기한 경험들을 쌓아간다. 연금술사는 평범했던 한 청년이 피라미드를 향해 떠나며 성장하는 기나긴 여정을 담고 있다.</p> <p>(강*하 선정)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로, 모든 만물의 이치는 어디로 통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소설이다. 누군가는 허망하다고 꾸짖는 꿈을 결국 찾아내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주인공을 통해 현실에 안주한 채 새로운 삶에 뛰어들지 않는 태도를 반성하게 해준다. 다만 단일한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아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가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대의 젊은 세대인 우리가 앞으로</p>								제목	연금술사							저자	파울로 코엘료							출판	문학동네							분류	장편소설							독서기간	11/14(목) ~ 11/20(수)						
제목	연금술사																																															
저자	파울로 코엘료																																															
출판	문학동네																																															
분류	장편소설																																															
독서기간	11/14(목) ~ 11/20(수)																																															

꿈을 찾고 도전하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선정하였다.

IV. 「연금술사」에서 감명 깊었던 내용

(1) 장*우

“내일 죽게 된다면, 오늘을 보람 있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삶은 전부 현재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주인공 산티아고가 사막에서 위험과 마주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장면에서 나온다.

이 내용이 특히 인상 깊었던 이유는, 내가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현재뿐이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나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는 데 있다는 메시지가 내 마음에 강렬하게 와닿았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현재에 쏟아붓는 삶의 태도이다.

(2) 강*하

“난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먹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소. 걸어야 할 땐 걷는 것, 그게 다지. 만일 내가 싸워야 하는 날이 온다면, 그게 언제가 됐든 남들처럼 싸우다 미련 없이 죽을 거요. 난 지금 과거를 사는 것도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니까. 내겐 오직 현재만이 있고, 현재만이 내 유일한 관심거리요. 만약 당신이 영원히 현재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일 게요.”

이야기 속 사막을 이동하던 행렬 가운데 한 낙타몰이꾼이 한 말이다. 그들은 전쟁의 위협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낙타몰이꾼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미래에 죽을지도 모를 공포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단지 지금이 자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잠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리는 모두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의 행복했거나 힘들었던 기억 혹은 미래의 걱정과 불안 때문에 온전히 현재를 살아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과거가 되었을 때, 온전히 누리지 못한 과거를 후회하면서 또 다른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나도 바쁜 일상 속에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워한 채 시간을 보냈던 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 낙타몰이꾼의 말처럼, 내겐 오직 현재만이 있고 현재만이 유일한 관심거리임을 명심하고, 나의 삶과 행복에 조금 더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다. 인간의 삶이란 부족하기만 해서 우리는 언제나 과거에 얽매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3) 차*민

‘행복은 단순히 현재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메시지가 삶의 본질을 꿰뚫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본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찾아 떠난 여정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정을 걷는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경험, 배움이야말로 그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줬음을 깨닫는다. 특히,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연금술사가

산티아고에게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며 "삶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순간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이 메시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산티아고는 목표만을 생각하며 현재를 놓치던 태도를 버리고, 여정의 작은 순간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가르침은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성공과 목표에 몰두하다가 현재를 소홀히 하고, 지나고 나서야 그 순간들이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 행복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먼 미래에 도달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소소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본다. 산티아고의 여정은 물질적 보물만을 좇던 시선을 삶 자체로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그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지금의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꿈을 이루는 순간에도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음미하고 행복이 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4) 김*희

“자신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자아의 신화는 더욱더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로 다가오는 거야.”

이 문장은 꿈과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꿈에 가까워질수록 자기 자신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며, 내면과 외면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문장을 통해 우리는 꿈이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꿈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핵심으로 연결되며,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자신에 대한 고찰과 목표를 통해 삶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 문장은 나에게 “나의 꿈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꿈을 향한 여정이 단순히 목표 달성 그 이상으로 우리 삶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임을 알게 해주었다.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통찰을 적용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더 깊이 고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V. 토의 주제 선정

(1) 장*우 :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충실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2) 강*하 : 만약 누군가가 먼 곳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만 몰래 알려준다면, 나는 산티아고처럼 여정을 떠날 수 있을까?

(3) 차*민 : 행복은 결과에 있는가, 과정에 있는가?

(4) 김*희 :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종 주제] 만약 누군가가 먼 곳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만 몰래 알려준다면, 나는 산티아고처럼 여정을 떠날 수 있을까?

*「연금술사」는 주인공 산티아고가 피라미드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보다 산티아고가 사막을 횡단하는 여정에서 어떤 배움을 얻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빼앗겨 낫선 땅에서 굶주리기도 하고, 트리스털 가게에 취업하여 몇 년 동안 일하기도 하며,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파티마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정체불명의 한 연금술사를 만나 연금술의 진리와 자아의 신화를 이루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피라미드에 도착했지만, 허망하게도 강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빈털터리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가 찾던 보물은 바로, 그가 양치기 시절 기대어 잠을 자곤 하던 나무 아래에 묻혀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산티아고의 삶을 따라가며, 만약 우리라면 산티아고처럼 사막으로의 긴 여정을 떠날 수 있을지, 또한 험난한 모험 끝에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와 보물을 찾았을 때 마음은 어떨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VI. 주제에 관련된 의견 발표

(1) 장*우

누군가가 먼 곳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만 몰래 알려준다면, 나는 산티아고처럼 여정을 떠날지 고민이 될 것이다.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큰 결단을 요구하며, 당장 편안하고 익숙한 일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금전적 부담, 시간,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기를 망설이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산티아고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여정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만약 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찾으려는 열망이 내 안에 강하게 자리 잡는다면, 나 역시 여정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삶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며, 큰 꿈을 좇는 도전이야말로 내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내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티아고처럼 도전의 길에 나선다면,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겪는 시련, 그리고 깨닫는 진실이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나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것이다. 보물을 찾을 수 있든 없든, 여정 그 자체가 내 인생의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2) 강*하

주인공 산티아고는 아주 평범한 양치기였다. 양과 책을 사랑하고, 떠돌이 생활을 즐기는 따뜻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한 늙은 왕과의 짧은 대화로 인해 그토록 사랑하던 양들을 다 팔아버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가는 긴 여행을 떠난다. 나는 궁금했다. 아무리 보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의 삶을 포기하고 훌쩍 떠날 수 있었을까? 심지어 양을 팔고 받은 돈을 출발하자마자 모두 강도에게 빼앗기고,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음에도 그의 목표인 피라미드를 향해 떠났다. 만약 나라면 산티아고처럼 용감하게 여행할 수 있을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중,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문장이 있다. 산티아고는 아늑했던 공간인 그의 알을, 자신의 세계를 깨뜨리고 태어나 비로소 ‘자아의 신화’를 획득한 것이다. 새는 알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새의 존재 이유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산티아고의 여

행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피라미드로 향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현재의 안락한 삶을 용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힘, 그것이 한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산티아고는 바람으로 변하는 법을 배웠고, 해와 바람과 땅과 대화하는 법을 익혔으며, 어디에 있든 굳건히 존재할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따라서 누군가 나에게 먼 곳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나는 반드시 떠나야만 할 것이다. 책에서는 메카 성지를 여행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그들은 죽을 때까지 메카로 떠나지 않는다. 삶의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삶의 이유를 스스로가 아닌 다른 것에서 얻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우리가 반드시 피라미드로 떠나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3) 차*민

만약 누군가가 먼 곳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만 몰래 알려준다고 해도, 나는 산티아고처럼 여정을 떠날 수 없을 것 같다. 보물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책임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간다. 나 역시 당장의 생계와 직업, 가족과의 관계 등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 속에 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

또한, 보물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정을 떠나는 것은 무모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재 내가 이루고 있는 작은 성취와 안정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하고, 산티아고의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꿈을 좇아 보물을 구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나로써는 보물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보물을 구한다고 해도 성취감이 있을 것이라는 장담이 없을 뿐더러, 내가 원하는 보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나는 막연한 보물의 존재보다도 현재 내가 소중히 하고 있는 일상과 관계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편이다. 여정을 떠나기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제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4) 김*희

산티아고의 여정을 대입해 생각해 보면, 그가 겪었던 모든 과정을 감안할 때 나는 산티아고와 같은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산티아고는 자신의 양을 팔고, 모든 익숙한 것들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갔다. 그는 여정에서 여러 차례의 시련을 겪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

산티아고는 자신만의 강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꿈속에서 보물을 본 것에 대해 확신했고, 그 확신이 그를 떠나게 했지만 나는 그런 믿음이나 열정을 가지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보물을 찾으러 떠난다고 해도, 그 말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산티아고도 여정 중에 자신의 결정을 의심한 적이 있지만, 그는 이를 극복하고 내면에서의 보물을 찾게 되었다.

또한 산티아고가 떠났던 여정에는 많은 희생이 필요했다. 그는 양치기라는 안정된 삶을 포기했고, 여정을 떠나면서 돈도 모두 잃었다. 그의 여정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끈기와 행운이 따라주었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그러한 끈기가 있을지 의문이 생겼고, 무엇보다 그런 여정을 떠나는 동안 잃

게 될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학업이나 직장, 가족에 대한 책임을 내려놓고 오랜 시간 떠나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생각했다. 보물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그 모든 희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것 같다.

여정 중에 산티아고는 목숨을 위협 받는 상황도 겪었다. 그는 사막을 건너며 부족 간 전쟁에 휘말리고, 약탈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현대의 세계에서도 위험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산티아고처럼 극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이겨낼 용기가 과연 나에게도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 때문에 보물에 대한 꿈만으로 여정을 떠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

VII. 활동 사진

2024년 11월 21일

참가자대표 : 강 * 하